
 교육부		보도참고자료 2020. 9. 9(수) 배포			
보도일	2020. 9. 9.(수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9. 9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고등교육정책과	담당자	과 장 서기관	송근현 (☎ 044-203-6917) 하진혜 (☎ 044-203-6918)	
	대학학사제도과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안웅환 (☎ 044-203-6249) 이규성 (☎ 044-203-6252)	
	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담당자	과 장 사무관	천범산 (☎ 044-203-6883) 김홍오 (☎ 044-203-6313)	

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」 발표

- ❖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등 공유성장형 고등교육생태계 구축
- ❖ 혁신공유대학체제를 통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 양성
- ❖ 내실있는 원격/대면 수업운영을 위한 대학의 질관리체계 마련 지원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9월 9일(수)에 열린 제15차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」을 발표했다.

○ 이번 방안은, 지난 7월 2일(목)에 개최된 ‘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’에서 논의된 방안을 기반으로, 대학생,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반영하여 확정된 것이다.

□ 2020년 1학기 대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일부 준비가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하였으나, 방역 대책, 온라인 강의 질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혁신주체로서 대학 현장의 힘을 보여주었다.

※ 대학생 설문조사(8.10.~8.23.) 결과, 1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만족 39.6%, 불만족 29.8%,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의 준비에 대하여는 만족 21.2%, 불만족 48.1%

□ 원격교육 확대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대학간, 대학-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.

○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, 대학의 혁신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《첫째, 대학 학사운영의 뉴노멀을 정립하여, 디지털 기술을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.》

□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, 대학이 원격/대면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<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('20.하) >

구 분	현 행	개 선
개설 학점	총 학점의 20% 이내	자율
이수가능학점	학부 자율, 대학원 20%이내	자율
운영 근거	지침 (세부적 사항 규제)	학칙 (최소한의 운영기준은 훈령에 명시)

○ 국내대학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석사과정 및 국내-해외대학간 공동 온라인 학·석사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.



□ 아울러, 지역 내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한다.

○ 올해부터 추진하는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’을 통해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* 및 제도화**하여, 지역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.

* '20년 3개 → '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. / '20년 1,080억원 → '21년 1,710억원

**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추진('20.하~)

○ 이러한 대학 간 공유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‘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*’를 도입한다.

* 지역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기준완화 또는 적용배제

-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, 시설 등 자원공유 실적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반영(‘21)하고, 대학간 협업·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을 새롭게 마련*할 계획이다. *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(‘21)→차기 진단 모델 마련(‘22)

《둘째,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급변하는
신기술분야 인력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》

-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‘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’을 통해 ‘26년까지 신기술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(‘21년 1,048억 원).
- 신기술분야*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이 특화된 분야의 모듈화 된 교육과정을 개발·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여,
- *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차세대(지능형) 반도체, 사물인터넷 등
-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 된 수준별 융·복합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고,
- 이를 통해 비전공학생, 졸업유예생, 취업준비생 등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.



- 아울러, 4단계 두뇌한국21(‘21~’27/4,080억 원)를 통해 비대면·디지털 분야(트랙)를 신설하고, 디지털분야 우수박사학위 취득자의 연수를 지원(‘21, 570억 원)하는 등 신산업분야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한다.

- 또한 ‘21년부터는 ‘마이스터대*’를 시범 운영하여 신산업분야 전문 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한다.

* 신산업 수요, 전략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집중 육성 교육과정으로, 단기과정부터 석사까지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(‘21, 4개교, 각 20억 원)

《셋째, 포스트코로나시대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》

-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학기에도 대부분의 대학(전체대학 중 99.4%)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*, 원격수업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.
- * 코로나 상황이후에도 원격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: 학생 71.9%, 교원 71.1%
-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,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강의 운영 교육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을 마련한다.
- 동시에 교직원,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고, 원격수업 강의평가를 학기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적 질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.
- 정부는 대학의 원격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i)총 1,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실시하고, ii)온라인 원격도우미 배치(‘20.下, 4,200명, 총 412억원) 및 iii)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.
- 아울러, 질제고차원에서 ‘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’을 제정(‘20.下)하고, 비대면 교육활동 실적을 역량진단에 반영(‘21)하며,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에 착수한다(‘21).

- 특히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는 등 모든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한다

- * i) 취약계층 학생 정보화 지원 실적을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배분에 반영
- ii) 한국장학재단의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기기 제공 추진

< 원격수업 질 제고 체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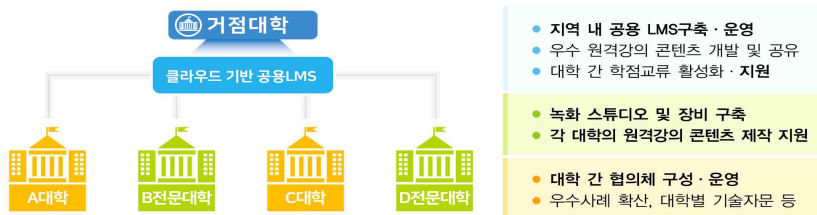
구분	원격수업 질 제고	질관리체제 구축
대학의 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▶ 교수자 대상 온라인 강의운영 교육 ▶ 수업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강의평가 공개 (학기중 2회 이상) ▶ 원격수업 관리위원회 운영(학생참여) ▶ 외부콘텐츠 인정기준 마련
정부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▶ 교원 대상 온라인 원격 도우미 배치 ▶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 도입연구 착수 ▶ 비대면 교육활동실적 역량진단 반영

- 대학간 자원 공유 활성화, 고속 전산망 구축 지원 및 우수 온라인 콘텐츠 확충·보급을 통해 대학 간 원격수업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.

-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을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공용 LMS 및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('20, 128억원 → '21, 179억원)

- 지역 내 대학간 실험실습실 및 취·창업지원공간 공유 등 온-오프라인 협업도 지원한다

<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>



- 국립대(39개교)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고속 전산망 구축을 지원('21년, 136억원)하는 한편, 한국형 온라인 강좌(K-MOOC)를 확충*하여 대학의 학점인정, 교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강좌 확대 목표(누적) : ('19)745개 → ('21)1,055개 → ('23)1,485개→('25)2,045개

《넷째,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직업전환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》

-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필요한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·지원하고,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.

-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워진 현장실습, 실기과목을 증강현실(AR)·가상현실(VR)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과목으로 대체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한다('20.下).

-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발표에 이어, 박백범 차관 주재로 대학 총장 등 대학관계자와 함께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(9월 9일 15시).

- 웹세미나에 참여한 대학관계자 등과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 방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, 효과적인 현장 안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<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지원방안 웹세미나 개최>

- (시간/장소) '20. 9. 9.(수), 15시 ~ 16시 (1시간 소요) / 온라인
- (참석) 대학 총장 및 주요 보직자 등 500여명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교육과정 혁신의 기회로 삼아, 대학간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 기대하며,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